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흐리산토스와 성 다리아 순교자

사순절 제4주일

성 요한 클리막스 수사

제8조 / 조과복음 8

성 대바실리오스 성찬예배에서

· 제8조 부활 찬양송 / 82, A 218

· 주일 입당송 / 46, A 139

· 성 요한 클리막스 수도자 찬양송 / 비교정
축일 성가집 46

· 성당 찬양송

· 사순절 시기송 / 223, B 276

· 사도경 : 히브리 6,13-20 / 233, 봉독서 454

· 복음경 : 마르코 9,17-31 / 139, B 97

· 성모송 '은총이 가득하신 이여' / 62, A 171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부부 순교자 성 흐리산토스와 성 다리아 순교자

사도 바울로께서 “어떤 교우에게 교인이 아닌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계속해서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여자 교우에게 교인이 아닌 남편이 있는데 그가 계속해서 함께 살기를 원하면 역시 그 남편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고린도1서 7:12~1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3월 19일에, 이 사도 바울로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거룩한 순교자 흐리산토스와 다리아 부부를 기념합니다. 흐리산토스는 아름다운 여인인 다리아라는 이상승배

자를 배우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녀의 부모는 딸이 배우자 흐리산토스를 이상승배자로 만들기를 원했지만, 반대로 그녀가 도리어 흐리산토스로 인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결혼을 가볍게 생각하여 사소한 일로 이혼을 하고 가정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이 거룩한 부부는 각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서로 간의 사랑과 존중으로 결국에는 하나의 믿음을 가지게 되고 나아가 순교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마르코 9, 29)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듣는 말은 ‘하느님께 기도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 초기에는 기도도 해보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가지 핑계로 중단하고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고 곧 기꺼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마음 속에 뿌리가 내리지 않아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만다. 미처 기도의 본질을 깨닫고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몸에 익히기 전에 포기하는 것이다. 기도의 참맛을 알면 기도하지 않고는 못 배길 것인데, 그 맛을 보기도 전에 포기하고 만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서의 가르침과 바른 믿음의 가르침을 전해주시는 교부들과 성인들의 모범을 본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기도랍시고 하고 있으며, 그것을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것을 주위에서 혼하게 본다.

세상 속에 찌들어 살면서 기도를 소홀히 하고 살다보면 문득문득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 목마름을 하느님께 기도하며 위로를 받고 기도에서 다시 전념하고 영적인 기쁨과 만족을 갖고 평화로이 지내야 하지만, 사탄의 마수에 빠져 세상에 미련이 많아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저 세속적으로만 해결해 보려고 애쓰곤 한다. 마치 탕아처럼 ‘거기서 재산을 마구 뿌리며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그러다 다행히 탕아처럼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서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고 돌아오듯이, 다시 하느님께 돌아와 영적 기쁨을 맛보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비가 온 뒤에 땅이 더욱 단단해지듯이 ‘백 배 혹은 육십 배 혹은 삼십 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지만 아버지의 따스한 사랑의 온기를 미처 느껴보지도 못한 사람들은 세속에 빠져

아버지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게 된다. 교회의 문을 두드려서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서 아버지의 품을 알지도 못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언제나 기도하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참고 인내하며 끊임없이 기도를 하라고 당부하신다. 기도 시간에 주위 사람들과 나 자신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하며 성인들의 중보를 요청하다보면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났나 하고 아쉬움과 더불어 영적 만족과 기쁨이 교차할 때가 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해서 하느님의 품으로 안기게 되는 영적 기쁨을 알게 되면 비록 세속의 유혹에 잠시 빠졌더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왜 저희는 악령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하고 묻자 예수께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쫓아낼 수 없다.”하고 대답하셨다. 하느님을 많이 사랑하고 회개하면 그런 능력도 생길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악령들이 복종한다고 기뻐하기 보다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루가 10, 20)하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것은 어떤 큰 능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회개하며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통해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은 오직 기도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생활화해야 한다.

▶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트리폰 수도원장

“겸손하고 영적으로 적극적인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과 관련시킬 것이다.”(성 마르코 금욕가, 5세기)

참으로 우리 자신만을 탓해야 할 때, 우린 모두 다른 사람을 탓하는 타고난 경향이 있다. 우리 자신의 죄와 단점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는 쉽다. 그러나 영적인 발전은 겸손하고 깊이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은 가르쳐준다.

우리의 잘못에 대해 남을 비난하는 한, 우리는 영적인 길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침체된 상태로 있게 된다. 거룩함을 향한 진보는 우리가 오로지 우리 자신의 결점만을 바라볼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인들의 삶이 분명하게 증언해준다.

남의 잘못이나 악을 바라보는 것은 훨씬 더 편하고 기분 좋은 것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른 이에게 초점을 맞추으로써 우리 자신의 행동을 바꾸고, 성령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대단히 중요한 일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의 잘못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자아를 만족시키는 교만이 더 강하게 자라도록 방치하게 된다. 이로써 우리는 자기만족에 부풀어 있으며, 헛되고 근거 없는 자만에 빠져들게 된다.

반대로 우리의 부족함에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까지 우리의 영혼을 지키게 되고, 삶의 끝 날까지 깨어있게 된다. 우리의 잘못에서 눈을 떼어 이웃의 죄에 집중할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빼앗겨 버린다. 우리의 마지막 날과 시간을 모르는 까닭에 우리는 매 순간 순간을 마치 우리의 마지막인 것처럼 여겨야만 한다.

▶ 아타나시아



소 식

대교구

■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 한국 방문**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께서 올해 한국정교회 서울 성 니콜라스 주교좌 대성당 건립운영 50주년과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 설립 30주년 기념을 축하해주시기 위해 한국 방문을 결정해주셨습니다. 이번이 4번째로 12월에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 『영성 예술』 증보 개정판 출판 기념회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께서 집필하신 『영성 예술』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과 함께 그 동안 정교회출판사에서 출간한 성화에 관련된 책들, 『이콘 신학』, 『이콘을 아십니까?』를 함께 소개하는 출판기념회를 3월 27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에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 예정입니다. 함께 참여해주셔서 출판기념회를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성당 정원 꽃 심기

오는 3월 25일 주일 성찬예배 후 성당 정원에 꽃 심기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성당 대청소

오는 4월 1일 성지 주일 성찬예배 후 부활절 준비 대청소가 있겠습니다. 모든 신자들의 협조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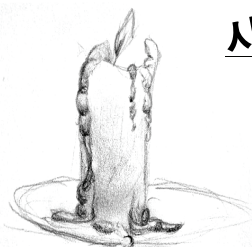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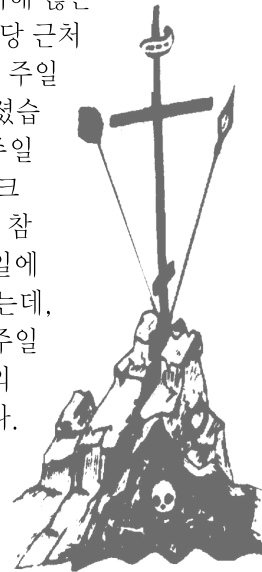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시간 안내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는 대사순절 기간 주 중에 **수요일 오전 9시, 금요일 오전 9시**에 두 번의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가 거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후 4시 30분에 대카논** 예배가 거행됩니다. 신자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착오 없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성 바울로 성당

■ 영원히 기억하시리이다

인천 성 바울로 성당의 테오도라 송정수 교우가 지난 2018년 3월 13일(화)에 주님의 품 안에 안식하셨습니다. 인천 성당 선교의 시작과 함께 하신 고인께서는 지난 30년 동안 교회를 위해 많은 봉사를 해주셨고, 성당 근처로 이사 오셔서 매주 주일 성찬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지난 정교 주일 성화 행렬 시 성 마크리나 성화를 모시고 참석하신 다음 월요일에 응급실에 입원하셨는데, 이번 십자가 경배 주일을 보내시고 주님의 품에 안식하셨습니다. 테오도라 교우(86세)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사순절 제5주간 예식

- 화·목요일 오후 5시 ▷ 석후대과
- 3월 21일(수) 오전 9시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오후 5시 ▷ 대카논
- 3월 23일(금) 오후 6시 ▷ 성모 기립 찬양
(자세한 예배 시간은 각 지역 성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